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유아 대처반응 관계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장 윤 희¹⁾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문 혁 준²⁾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가족 레질리언스 및 유아 대처반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유아 대처반응 관계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인천지역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의 어머니 284명을 대상으로 부부 조망수용능력, 유아 대처반응 및 가족 레질리언스를 측정하고 SPSS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부 조망수용능력에 따른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은 가족 레질리언스에 의해 완전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부 조망수용능력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은 가족 레질리언스에 의해 완전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에서 조망수용능력이 핵가족 구조에서 가족의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쳐, 결국 유아의 대처반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특수한 성격의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에서 벗어나,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유아 대처반응 관계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유아의 대처반응을 길러주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부부 조망수용능력, 유아 대처반응, 가족 레질리언스, 매개효과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학과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mhyukj@unitel.co.kr)

I. 서론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름대로 대처반응을 강구하게 된다. 인간의 삶에서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며, 효과적인 대처능력의 발달은 문제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면서 이루어진다.

대처능력은 정서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Lazarus(1991)에 의하면, 인간의 대처 여부에 따라 적응 또는 부적응이 초래한다고 하였으며, Endler와 Parker의 실증적 연구(1990)에서는 대처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 및 행동적, 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유아가 심리적 적응과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은 유아가 접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로, 유아는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드러나는 부모의 모델링을 통해 생애 전반에 걸쳐 사용하게 될 대처반응을 유아기에 직접·간접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유아의 대처반응은 상황에 대한 정서표현과 관련이 있는데, 이미 여러 연구자들은 부모는 유아가 정서표현을 배우는 최초의 중요한 환경이며(Tomkins, 1991), 양육자의 정서적인 이해, 경험, 표현을 부모 자신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고 주장해 왔다(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McElwain, Halberstadt, & Volling, 2007).

유아의 대처반응에 대한 직접적인 부모의 영향에 대해, 지지적인 어머니가 양육한 아동은 다양한 긍정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만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대처전략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부모의 온정, 지지, 수용, 가족응집력 등은 유아의 접근적이거나 문제-해결적인 대처와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Hardy, Power & Jaedicke, 1993).

즉 유아기에 스트레스 상황이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분노를 잘 다루는 방법 또는 자신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잘 습득한다면 이러한 문제해결적 대처능력은 평생 지속된다(Goleman, 1995)는 것이다.

또한 부부관계가 유아의 대처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연구는 없으나, 대처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행하는 모든 반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폭넓게는 부적 자극에 대한 학습된 반응뿐 아니라 위협에 대한 본능적이거나 반사적인 반응을 포함한다(양복금, 김경희, 2001)고 할 때, 유아의 대처반응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부간 문제대처방식이나 부부관계에서 드러나는 분위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습득될 것이다.

부부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행복한 부부일수록 행복하지 않은 부부에 비해 주제에 상관없이 대화시간이 더 많고, 대화에서의 자기노출이 더 많고, 개인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조망수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rchler, 1989; Levenson & Gottman, 1985; Rosenfeld & Bowen, 1989). 이러한 부부 조망수용능력은 현대사회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술로, 유아가 조망수용능력을 발휘하는 부모의 태도에 자주 노출될수록 유아의 안정된 정서와 사회성을 습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유아 대처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는 것은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에 대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해체로 인해 부부가 부재한 가족이나 맞벌이로 인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부부가 함께 양육적 지원을 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편, 가족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집의 벽 뒤에서 그들을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Goode, 2005), 현대사회의 핵가족 구조에서 대부분의 유아에게 가족이란 양육자 또는 부모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므로 가족의 영향과 관련된 변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영향과 관련된 변인 중 가족건강성, 가족탄력성과 유사한 의미의 가족 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며, 주요한 타인들과의 경험에 대한 공유 및 상호의존을 통해 형성되는 능력이다(Walsh, 2002).

국내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알콜의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지연, 2010),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연구(김경순, 2010; 김안자, 2006; 박인정, 2007), 다문화 가족에 관한 질적

연구(김미진, 2010), 위탁아동(김은정, 2008)이나 장애아동(홍정아, 2009), 입양가족(조민혜, 2009)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일반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레질리언스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옥선화, 이미숙, 이주리, 권희경, 남영주, 2006)가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국내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가족의 위기, 고난, 역경 등은 비단 특수한 환경에 처한 가족들의 문제만은 아니며,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양권 국가에서 가족의 문제나 어려움을 드러내는 일은 서양권 국가에 비해 다소 폐쇄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일반 가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므로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 레질리언스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신혼기부터 자녀유아기까지는 역할분담, 성적부적응, 아동양육에서의 갈등이 생기는 시기로, 부모기로의 전환은 가족의 인생주기에서 가장 힘들고 도전적인 전환 중 하나로 개인적 변화와 결혼관계 변화 모두에서 높은 부정적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Crohan, 1996). 실제로 통계청(2011)이 발표한 결혼초기부부의 이혼율¹⁾은 다른 가족발달주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결혼초기에 형성된 상호작용 패턴이 전체 결혼기간에 영

1) 2010년 이혼부부의 동거기간별 구성비를 보면 5년 미만 27%, 5~9년 18.8%, 10~14년 15.9%, 15~19년 14.5%, 20년 이상 23.8%로 나타나고 있어, 결혼초기부부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동인, 정현숙, 1994; 유은희, 1994)들은 결혼초기부부 즉,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관계에서 가족의 역량이 이후 가족의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부부는 가족 체계의 중심으로 가족의 기능이나 건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부문제나 부부 자신들만이 아니라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김형일, 2007; 박민지, 2005) 부부 사이에 수시로 나타나는 갈등과 위기를 다루고 처리하는 능력은 부부 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장선웅, 2008)이 되며,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가족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다면 부모의 심리체계가 긍정적으로 발달하여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원간의 유대가 돈독하며 결속력이 강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유아들의 행동문제가 적고 이후의 사회적 기술 능력이 발달하고 위축이나 불안, 공격적 성향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박성연, 임희수, 2000; 안선희, 김선영, 2004). 즉,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비록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가족의 역량이나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것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중 위기를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의 발달과 관련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유아의 대처반응 간 관계는 부부와 자녀 중심으로 구성된 핵가족 사회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밝히기 보다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간접영향

을 밝히는 것이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은 ‘왜(why)’와 ‘어떻게(how)’에 대한 답을 구할 때 유용하다(Mackinnon & Leucken, 2008; 민하영, 2010에서 재인용)는 점을 고려할 때, 매개모형을 기초로 부부 조망수용능력, 가족 레질리언스,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 및 부정적 대처반응과 관련된 변인을 밝히려는 본 연구는 유아의 긍정적 및 부정적 대처반응이 나타나는 원인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 유해환경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들에게도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유아의 대처능력을 기르는 것이 지역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금옥, 송연숙, 김영주, 2011)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조망수용능력에 따른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은 가족 레질리언스에 의해 매개 되는가?

둘째, 부부 조망수용능력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은 가족 레질리언스에 의해 매개 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 경인지역에 소재하는 7개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286명의 만3, 4, 5세 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먼저, 유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을 기준으로 남아는 152명(53.1%), 여아는 134명(46.9%)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만5세 유아가 128명(44.8%)로 가장 많았으며, 만4세는 86명(30.1%), 만3세는 72명(25.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응답한 부부의 특성을 살펴보면, 부부간 연령차는 5세 미만의 연령차가 188명(65.7%)로 가장 많았고, 동갑이 50명(17.5%), 5~10살 연령차가 38명(13.3%), 10살 이상의 연령차가 10명(3.5%)로 나타났다. 부부

결혼연차는 5년~10년이 200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이 58명(20.3%), 5년 미만이 22명(7.7%)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부부 조망수용능력

부부의 조망수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Long과 Andrews(1990)가 개발한 부부 조망수용 자기보고 척도(SDPT: The Self Dyadic Perspective-Taking Scale)를 한혜영(2004)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SDPT는 13문항의 자기보고 질문지로 특별한 관계 맥락 내에 있는 부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며, ‘나는 내 배우자의 문제를 잘 이해한다.’, ‘내 배우자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배우자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배우자와 다투었을 때, 나는 일반적으로 잠시 동안 배우자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부 조망수용능력은 총 13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가족 레질리언스

Walsh(1998)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김은정(2008)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 레질리언스 측정도구는 총 61문항으로 가족통제감, 긍정적 사고, 도덕 및 종교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신념체계 19문항, 융통성, 연결성, 가족자원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된 조직유형 22문항, 명료성, 정서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N=286)

	구분	빈도	%
유아성별	남아	152	53.1
	여아	134	46.9
유아연령	만3세	72	25.2
	만4세	86	30.1
	만5세	128	44.8
	동갑	50	17.5
부부간 연령차	5살 차 미만	188	65.7
	5~10살 차	38	13.3
	10살 차 이상	10	3.5
부부 결혼연차	5년 미만	22	7.7
	5~10년	200	69.9
	10년 이상	58	20.3

반응차원, 문제해결차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의사소통과정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레질리언스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신념체계 .81, 조직유형 .78, 의사소통과정 .93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레질리언스 전체는 .94로 나타났다.

유아 대처반응

유아의 대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Eisenberg, Fabes, Bernawing, Karbon, Poulin, Hanish(1993)가 제작한 것을 김희정(1994)이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대처반응에 대한 질문은 일반적인 문제상황에 부딪혔을 때 유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매일 겪을 수 있는 세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유아가 어떻게 대처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나리오의 첫 번째 상황은 블록으로 집짓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유아가 고의적으로 쓰러뜨렸을 때, 두 번째 상황은 또래 유아들의 놀이에서 제외되었을 때, 세 번째 상황은 또래 유아들이 놀렀을 때이며,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가 관찰한 것을 보고하는 검사방식이다.

유아 대처반응 검사도구는 문제해결 대처반응, 지지, 감정발산, 무반응, 공격적 행동, 회피의 6가지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984)가 상호 거래적 모델에서 대처에 대해 개인의 내, 외적 요구를 다루는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개인의 인지적, 행동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유미라(2002)에 의하면 문제해결은 자기 자신이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문제상황을 바꾸

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지지 구하기는 필요한 조언이나 정보를 주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대처반응과 지지는 문제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방법으로 반응하려는 유아 개인의 노력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대처반응으로 구분하였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유아 개인의 노력이나 문제해결적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방법으로 표현되는 반응인 감정발산, 무반응, 공격적 행동, 회피반응은 부정적 대처반응으로 구분하였다.

문제해결 대처반응, 지지는 10문항, 감정발산, 무반응, 공격적 행동, 회피반응은 33문항의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 대처반응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또는 부정적 대처반응이 각각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긍정적 대처반응 .76, 부정적 대처반응 .8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예비조사

본 연구를 위하여 2010년 11월 한 달간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1명과 박사과정 재학생 4명의 의견에 따라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뒤, 만 4, 5세 유아를 둔 학부모 3명과 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내용이나 표현이 이해하기 적절한지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본 조사

본 조사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서울, 인천지역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원아의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하여 약 180부를 회수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경기지역의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원아의 어머니 150명을 추가 조사하였다. 미회수된 설문지와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84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각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기술통계량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구하였고,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Enter)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해야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해야 한다. 또한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매개변인

을 통제된 후에 유의미하게 줄어들어야 한다. 즉,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독립변인의 효과(β 값)가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을 묶어서 독립변인 군으로 했을 때의 효과(β 값)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경로모형의 전체 효과 및 직·간접효과를 Bootstrapping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 관련 변인에 관한 점수 범위와 최소-최대값 및 평균(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인의 평균(표준편차)은 부부 조망수용능력 3.58(.46), 가족 레질리언스 3.67(.46), 긍정적 대처반응 3.29(.49), 부정적 대처반응 2.45(.42)로 나타났다.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부부 조망수용능력에 따른 유아의 대처반응에 대한 가족 레질리언스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부 조망수용능력은 가족 레질리언스($r=.66, p<.001$),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

표 2. 부부 조망수용능력, 가족 레질리언스,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 및 부정적 대처반응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84$)

변인 \ 통계치	범위	최소-최대값	M(SD)
부부 조망수용능력	13~65	2.23~4.54	3.58(.46)
가족 레질리언스	61~305	2.64~4.49	3.67(.39)
긍정적 대처반응	10~50	1.33~4.60	3.29(.49)
부정적 대처반응	33~165	1.33~3.56	2.45(.42)

표 3. 부부 조망수용능력, 가족 레질리언스,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 및 부정적 대처반응 간의 상관관계 ($N=284$)

	1	2	3	4
1. 부부 조망수용능력	1			
2. 가족 레질리언스	.66***	1		
3. 긍정적 대처반응	.30***	.39***	1	
4. 부정적 대처반응	-.14*	-.24**	-.14*	1

* $p < .05$ ** $p < .01$ *** $p < .001$

($r = .30, p < .001$)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r = -.14, p < .05$)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때 독립변인간 상관관계는 .66미만이었으며 공차 한계값인 Tolerance는 각각 .96과 .92를 나타냈으며, 분산팽창계수 VIF값 역시 각각 1과 1.09로 나타나 독립과 매개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계수는 각각 1.96과 1.94로 나타나 오차간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 관계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 관계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는 표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 독립변인인 부부 조망수용능력은 종속변인인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30, p < .001$), 2단계의 경우, 매개변인인 가족 레질리언스는 독립변인인 부부 조망수용능력에 의해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6, p < .001$). 3단계에서 부부 조망수용능력에 따른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beta = .07, p > .05$ ns)은 매개변인인 가족 레질리언스를 통제했을 때 그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에 대한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가족 레질리언스에 의해 완전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표 4의 1단계를 토대로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리고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가족 레질리언스

표 4.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 관계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N=284$)

	단계	변인	B	β	R^2	adj R^2	F
1	독립변인 → 종속변인	부부 조망수용능력 → 긍정적 대처반응	.31	.30***	.09	.08	26.73***
2	독립변인 → 매개변인	부부 조망수용능력 → 가족 레질리언스	1.67	.66***	.43	.43	213.51***
3	독립, 매개변인 → 종속변인	부부 조망수용능력, 가족 레질리언스 → 긍정적 대처반응	.07 .35	.07 .15***	.16	.15	25.76***

*** $p < .001$



그림 1. 부부 조망수용능력에 따른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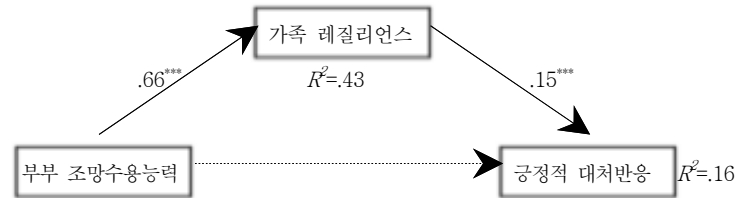


그림 2.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따른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

를 매개로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표 4의 1, 3단계를 토대로 하여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 관계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 관계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는 표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 독립변인인 부부 조망수용능력은 종속변인인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에 유의한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4$, $p < .05$), 2단계의 경우, 매개변인인 가족 레질리언스는 독립변인인 부부 조망수용능력에 의해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6$, $p < .001$). 3단계에서 부부 조망수용능력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beta = .04$, $p > .05$ ns)은 매개변인인 가족 레질리언스를 통제했을 때 그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에 대한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가족 레질리언스에 의해 완전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5.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 관계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N=284$)

	단계	변인	B	β	R^2	<i>adj</i> R^2	F
1	독립변인 → 종속변인	부부 조망수용능력 → 부정적 대처반응	-.12	-.14*	.02	.02	5.31*
2	독립변인 → 매개변인	부부 조망수용능력 → 가족 레질리언스	1.67	.66***	.43	.43	213.51***
3	독립, 매개변인 → 종속변인	부부 조망수용능력, 가족 레질리언스 → 부정적 대처반응	.03 -.09	.04 -.26**	.06	.05	8.55***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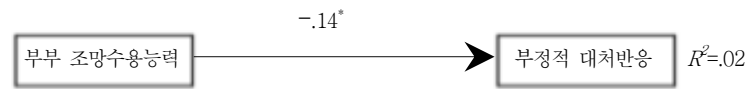


그림 3. 부부 조망수용능력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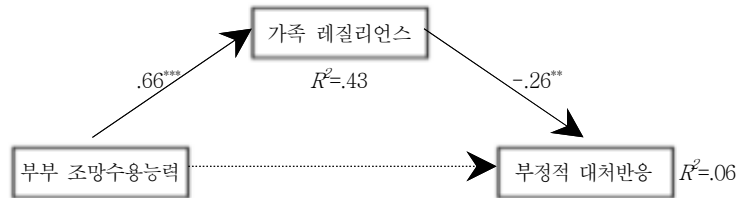


그림 4.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가족 레질리언스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표 5의 1단계를 토대로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리고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가족 레질리언스

를 매개로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표 5의 1, 3단계를 토대로 하여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한편, 부부 조망수용능력, 가족 레질리언스, 유아 대처반응 간 전체효과 및 직·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Bootstrapping 절차를 통해 검증한 결과를 경로모형 분할표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부부조망수용능력과 유아 긍정적 대처반응 및 부정적 대처반응 관계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경로모형 분할표

구분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부 조망수용능력 → 긍정적 대처반응	.23***	-	.23***
부부 조망수용능력 → 가족 레질리언스	.66***	.66***	-
가족 레질리언스 → 긍정적 대처반응	.15***	.15***	-
부부 조망수용능력 → 부정적 대처반응	-.10***	-	-.10*
부부 조망수용능력 → 가족 레질리언스	.66***	.66***	-
가족 레질리언스 → 부정적 대처반응	-.26**	-.26**	-

*p<.05 **p<.01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유아의 긍정적 및 부정적 대처반응 관계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조망수용능력은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에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영향은 가족 레질리언스에 의해 완전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완전매개와 관련하여, 부부 조망수용능력은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가족 레질리언스가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에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원체계가 부부 간의 긍정적인 상호관계이며, 배우자의 지지를 통해 지원받은 만족은 다른 지원관계에서는 제공될 수 없는 독특한 지원이라고 밝힌 보고들(신숙재, 1997; Belsky, 1984)이 있으며, Walsh(1998)는 부부간 정서적 지원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그 과정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충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상적인 부부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배우자를 지지하고 도우며, 배려하는 정서적 지원은 결혼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이은실, 최혜영, 2009),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부부간 정서적 지원은 부모 자녀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들(Conger, 1990; Elder, Conger, Foster, & Ardel, 1992)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부 서로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조망수용능력이 높을수록 서로의 역할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는 긍정적인 부부관계와 신뢰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부부관계가 궁극적으로는 부부와 자녀 중심으로 구성된 현대사회의 핵가족 구조에서 가족 레

질리언스를 강화시켜 유아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대처반응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둘째, 부부 조망수용능력은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에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영향은 가족 레질리언스에 의해 완전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정적 대처반응 역시 완전매개와 관련하여,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가족 레질리언스가 유아의 부정적 대처반응에 부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부부 갈등이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Davies와 Cummings(1994)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며, 임정하와 윤정진(2010)의 국내 연구 동향 연구에서도 정미영과 김영희(2003)의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양육행동은 부부갈등과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완전매개 또는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부간 대화가 적고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면 위기상황이나 변화에 대처하는 가족의 역량이 저하되고 이러한 가족의 분위기가 유아에게 영향을 미쳐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반대로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높고 가족 레질리언스가 높을수록 이로 인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역할 모델에 반영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유아가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

거나 공격적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아예 그 상황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적인 대처반응은 감소된다는 것을 뜻한다.

종합해 보면,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유아의 대처반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해도 가족 레질리언스가 유아 대처반응에 미치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결과는 유아의 대처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 부부 조망수용능력보다 가족 레질리언스가 더 영향력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부 조망수용능력은 유아의 긍정적 대처반응 및 부정적 대처반응에 영향을 미치나 이러한 영향은 가족 레질리언스에 의해 완전매개되며,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유아 대처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가족 레질리언스가 유아의 대처반응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족의 위기나 문제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인 가족 레질리언스가 부부 간 역할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유아가 부모의 태도를 모델링하면서도 이러한 가족 레질리언스를 간접적으로 학습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또한 유아 대처반응이 부부 조망수용능력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해도, 가족 레질리언스가 이를 매개하므로, 비록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못해 부부 조망수용능력을 유아가 관찰 학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를 대신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긍정적인 대처반응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의 역할과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시킨다면 부모의 이러한 노력이 유아에게 영향을 미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인 반응은 유아가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도록 촉진시키고 정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돕는다(Garner, Jones & Miner, 1994)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아가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대처로 반응했을 지라도 부부가 함께 지지한다면 긍정적인 대처반응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맞벌이 증가로 인한 조손가족이나 가족의 해체로 인해 온전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일지라도 다른 가족구성원에 의해 가족의 긍정적인 역량을 강화시킨다면 유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를 위해 유아교육 현장과 가정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가족 각자의 강점을 찾고 가족 간에 애정과 긍정적인 정서를 나눌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탄력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탄력적인 사회관계망과 무, 유형적 자원을 가족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전문가들의 활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

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대처반응을 측정하는 데 있어 어머니 자신이 평가한 정보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관에 투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대처반응 양식을 교사가 측정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측정함에 있어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만이 지각한 부부 및 가족 관계만을 측정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지각하는 부부 조망수용능력과 가족 레질리언스를 함께 측정하여 부부 상호간 검사를 함께 실시하여 좀 더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등 부부가 부재한 가족이나 재혼 가족, 다문화 가족 등 일반 가족과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연구를 통해 부부 조망수용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가족의 기능에 대한 연구와 또 다른 형태의 가족 유형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부부 조망수용능력, 가족 레질리언스, 유아 대처반응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부부 조망수용능력이 유아의 긍정적 및 부정적 대처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여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순 (2010).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가 모의 심리적 안녕 및 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진 (2010). 베트남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레질리언스에 관한 질적 연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안자 (2006). 가족 레질리언스가 한부모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2008). 가족 레질리언스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연 (2010). 알코올 의존자 가족 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형일 (2007). 부부 의사소통이 가족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정 (1994).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하영 (2010).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조절 및 정서조절 관계에서 애정-거부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 28(5), 1-12.
- 박민지 (2005).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의사소통

-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임희수 (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박인정 (2007). 한국 이혼자녀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사례 연구: 가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동인, 정현숙 (1994). 한국 도시가족의 부부문제 연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가족의 부부관계.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 1(1), 1-38.
- 신숙재 (1997).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선희, 김선영 (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 양복금, 김경희 (2001). 아동의 불안 정서에 대한 대처반응과 또래 수용과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6(1), 71-87.
- 옥선화, 이미숙, 이주리, 권희경, 남영주 (200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레질리언스 척도개발 연구: 척도의 타당화 검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1), 59-73.
- 유미라 (2002). 화·슬픔상황에서 아동의 대처반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은희 (1994). 한국 도시가족의 부부문제 연구: 상담가족의 부부간 상호작용.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 1(1), 39-53.
- 이금옥, 송연숙, 김영주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탄력성(유아·가족·지역사회)에 관한 인식 연구. 유아교육, 20(1), 181-196.
- 이은실, 최혜영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양육참여도 및 배우자의 지지. 대한가정학회지, 47(5), 13-22.
- 임정하, 윤정진 (2010).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인간발달연구, 17(1), 263-284.
- 장선웅 (2008). 원가족 경험이 부부친밀감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영,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조민혜 (2009).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11). 2010년 이혼, 혼인 통계. 통계청.
- 한혜영 (2004).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정아 (2009). 가족 레질리언스가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onger, R. D. (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3), 643-656.
- Crohan, S. E. (1996). Marital quality and conflict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African American and whit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 933-944.
- Devies, P., & Cummings, F.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287-411.
- Eisenberg, N., Fabes, R. A., Bernawin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Elder, G. H. Jr., Conger, R. D., Foster, E. M., & Ardel, M. (1992). Families under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Family Issues*, 13, 5-37.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 Martin, C. L.(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0.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 Madden-Derdich, D. A. (2002).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s (CCN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 285-310.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oode, W. F. (2005). The theoretical importance of the family.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13th ed) pp.14-25.. Boston: Pearson.
- Hardy, D. F., Power, T. G., & Jaedicke, S. (1993). Examining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children's coping with everyday stress. *Child Development*, 64, 1829-1841.
- Kirchler, E. (1989). Marital happiness and interaction in everyday surroundings: A time-sample diary approach for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375-382.
- Lazarus, R. S. (1991). Progress on a cognitive-motivational-relational theory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8), 819-834.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s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Levenson, R. W., & Gottman, J. M. (1985). Physiological and affective predictors of change in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49, 85-94.
- Long, E. C. J., & Andrew, D. W. (1990). Perspective-taking as a predictor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6-131.
- McElwain, N. L., Halberstadt, A. G., & Volling, B. L. (2007). Mother-and father-reported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young children'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quality. *Child Development*, 78(5), 1407-1425.
- Rosenfeld, L. B., & Bowen, G. L. (1989). *Marital Disclosure and Marital Quality: A test of the direct-effect versus reciprocity-effect model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Tomkins, S. S. (1991). Affect, imagery and consciousness: Vol. III. *The negative affects: Anger and fear*. New York: Springer.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alsh, F. (2002). A family resilience frame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 130-137.
- 1 차원고접수 : 2011. 07. 09.
수정원고접수 : 2011. 08. 13.
최종게재결정 : 2011. 08. 26.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and the Managing Responses of Young Children's

Yun Hee Jang

Hyuk Jun Moo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family resilience and the managing responses of young children. This study was also hoped to provide a basis for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and the managing responses of, young children. 284 mothers of preschoolers attending private kindergartens or day care centers in Seoul or Incheon city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to measure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family resilience and the managing responses of young children,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17.0.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managing responses of young children, according to the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ies was completely mediated by family resilience. (2) The negative managing responses of young children, according to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ies was also entirely mediated by family resilienc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ies influence family resilience in a nuclear family structure and it results in indirectly affects the managing responses of young children. This study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knowledge since it was focused on ordinary family groups to prove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and negative and positive managing responses on the part of young children rather than conducting the research on families with particular characters as has been done in past studies. These results should be fundamental to inspire managing responses on the part of young children by reinforcing a family spirit in the somewhat diverse family models found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Key words : marital perspective-taking ability, managing responses, family resilience, mediation effect